

흔들리는 G2 경제... 반쪽 위기 반도체... 투자위축에 줄어드는 일자리

‘사면초가’ 韓경제는 비상시국... 기업가 정신을 깨워라

R의 공포

① 한국경제 패닉

‘버팀목’ 반도체, 우려 목소리 커져
투자 유도·규제 완화로 방안 모색

#. 1991년 10월 빌리 타인 선장이 이끄는 어선 안드레아 게일호. 대서양 북부의 항구 글루체스터에 입항한다. 배 안에는 네 명의 어부들과 함께 큰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탄 바비가 타고 있다. 그러나 출항 후 약천후가 계속되고 남쪽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풍으로 변해 배를 뒤 흔든다. 천둥과 번개가 실 새 없이 내리쬐는 칙흑 같은 바다, 악마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파도, 거대한 파도 아래는 뒤집어지기 직전의 배들이 아우성이다.

2000년 조지 클루니가 주연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의 장면이다.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세계경제의 미래를 예언하며 쓴 뒤 ‘공포의 경제’를 빗댄 상징적 제목 됐다. 올해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꼭 이런 모양새다. 한국은 폭풍 한 가운데 떠 있는 배라고 할 수 있다. 파도가 출렁이면 금세 뒤집힐 수도 있다.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했다. 품목별 1위인 반도체 수출이 27% 줄었고, 지역별 1위인 대(對) 중국 수출은 15% 감소했다. 국책연구소인 KDI는 작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주요 기종별 설비투자자와 관련 업종별 내수출하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비)

	설비투자지수			내수출하지수				
	2017년	2018년 상반기	2018년 3분기	2017년	2018년 상반기	2018년 3분기		
총지수	14.1	1.3	-13.7	1.4	-2.1	-5.2		
일반 기계류	일반산업용기계	4.9	-0.7	-4.3	기타기계 및 장비	14.3	-3.0	-10.8
	특수산업용기계	54.1	0.4	-33.1	섬유제품	-4.0	-4.7	-10.7
					의복제품	2.5	-5.7	-8.4
					화학물질 및 제품	1.7	3.1	0.4
1차 금속제품	1.0	-2.4	-6.6					
전기 및 전자기기	영상음향 및 통신	-11.1	-5.8	1.3	전자부품 및 장비	-10.5	-1.3	-8.6
	컴퓨터사무기기	20.1	17.6	-7.4	전기장비	3.1	0.2	-2.7
	전기기기및장치	-8.5	-1.7	-15.3	의료정밀기기	24.7	6.0	10.5
정밀기기	정밀기기	15.4	9.2	2.2	자동차	2.5	3.3	-3.4
자동차	자동차	2.5	3.3	-3.4	자동차	-1.8	-4.8	-3.7
기타운송	기타운송장비	-23.6	-1.3	10.2	기타운송장비	9.3	11.7	14.4

/자료=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 3000명으로 비교 가능한 연간 통계가 제공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폭풍을 헤쳐나갈 나침반과 선장이 절실한 때다.

◆곳곳에 위험신호

반도체는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흔들리면서 우려가 커졌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6%로 낮출 것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미국 경제에 대한 불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전문가(이코노미스트) 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4%가 향후 2년 내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G2 경제가 흔들리면 반도체 등 한국경제에 좋을 게 없다. 실제 지난해 11월 반도체 출하 지수는 전월보다 16.3% 하락했다.

2008년 12월(-18%)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7% 줄어든 10조8000억원의 4분기 영업이익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경제동향 1월호’(그린북)에서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조절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협상 등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최근 우리 경제를 평가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기업들이 좀처럼 닫힌 문을 열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설비투자지수는 1년 전보다 10.0% 떨어져 전월의 일시적 상승(9.4%)에서 하락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가장 큰 복병으로 투자 위축을 꼽는다. ‘투자 저하-생산 감소-일자리 감소-소득 감소’라는 국민경제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어서다. 기업투자 경영환경이 ‘사면초가’ 위기에 놓이면서 취업자 가운데 20~30대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고용환경 악화가

이미 현실이 됐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전망도 암울하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제조업의 1분기 시황 전망은 83, 매출 전망은 85였다. BSI는 100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개선’을, 그 이하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특히 반도체의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90에 그쳤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도 97.2를 기록해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미래가 불확실해져서다.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중 7명은 올해 경제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경제 성장을 저하와 가계빚 때문이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나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G2(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성장률 하락, 실업률, 소비 침체 등이 복합적 이어서다. 최악의 경우 디플레이션이란 낙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수석연구원과 강중구 연구원은 ‘글로벌 리플레이션 현상 진단’ 보고서에서 “세계교역 위축과 보호주의 압력으로 생산기반이 해외로 계속 나갈 경우 국내 생산기반이 약해지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성장 활력을 높임으로써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투자 끌어낼 유인책과 규제 완화 동시에
“한국 경제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받아들이는 게 해결의 첫걸음이다.”(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경제학 교수 런던 특파원들과의 인터뷰 중(中)) 재앙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준비 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삼성·현대기아차·LG·SK 등 4대 그룹 총수 등을 대거 청와대로 초청,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들을 다그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유도 방안과 규제 완화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한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 제조업 내 공급 과잉을 완화하는 동시에 민관 투자 계획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구조적으로 투자 환경 개선과 규제 혁신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경총포럼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은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이 크고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는 규제가 여전히 너무 많다. 국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업종이나 산업에 있어서는 최소한 국제적 기준에 비슷한 규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마찬가지로 노동유연성도 최소한 다른 선진국이나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해달라는 게 경제계의 의견이다. 어느 나라든 기업가 정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기업들이 잘 돼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5% → 2% → 1% 갈수록 낮아지는 퇴직연금 수익률... 수수료 폭탄

10명 중 9명 연금 가입 후 운용 방식
투자 교육 의무화·자산배분 유도해야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88%로 낮은 수준이지만 퇴직연금 가입자 10명 중 9명은 연금 가입 후 운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가 퇴직연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체계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의 퇴직연금 가중평균수익률인 6.6%와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12년 연평균 4~5%대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3년 이후 2%대에서 2017년 1%대로 내려앉았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3가지로 나뉜다.

DB형은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정한다.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운용을 위탁하는 만큼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다. 근로자는 회사와 약속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수익률은 높지 않을 수 있다.

DC형은 DB형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통해 가입하지만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을 맺은 몇몇 금융회사 중 하나를 골라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고 변경하며 수익률

에 책임지는 방식이다. 대신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진다.

IRP는 개인이 자의로 돈을 적립해 운용하는 상품으로 DB형이나 DC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개인연금 합산 기준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DC형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운용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저금리 기조 영향도 있지만 가입자의 무관심도 한몫했다. 최근 DC형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이마저도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는 등 은퇴 후 주 소득원인 연금의 운용·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9월 말 기준 172조원으로, 이중 DC형은 46조4000억원(26.9%)으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90.1%가 퇴직연금 운용지시 변경을 하지 않았다. 특히 상품 운용 지시권이 있는 DC형의 경우 가입자의 91.4%가 운용지시를 방치했다. 또 가입자의 83.3%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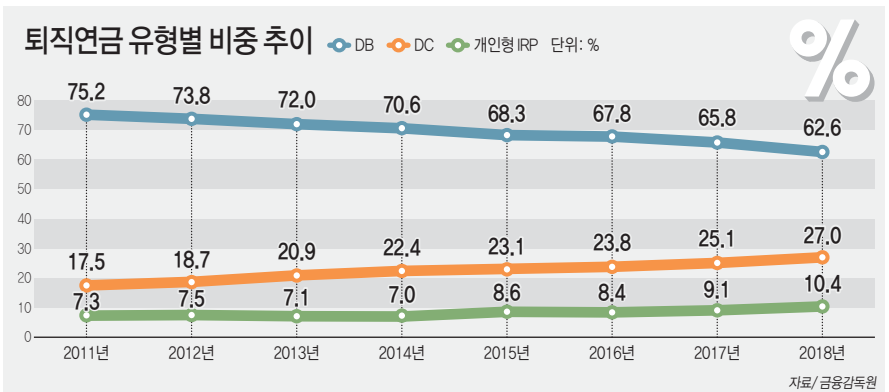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원리금 보장상품 선호현상이 높고 운용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분산투자를 활용한 장기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려는 노력 중이지만 역부족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는 0.05~0.6%, 자산관리수수료는 0.1~0.5%다. 적립금 규모별로 보면 5억원까지 운용관리수수료는 0.1~0.6%, 자산관리수수료는 0.1~0.5%로 나타났다. 50억원까지는 각각 0.1~0.45%, 0.1~0.5%, 500억원까지는 0.1~0.45%로 같다. 1500억원까지는 각각 0.05~0.4%, 0.1~0.45%로 조사됐다.

수수료를 포함한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은 2017년 기준 0.45%로 나타났다.

/김희주 기자 hj89@



제57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2월 20일~3월 14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9년 2월 23일~3월 1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3월3일(일), 3월10일(일), 3월12일(화)

김민호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